

해남군 5년간 나무 200만 그루 심는다

기후변화대응 추진과제 선정

848ha면적 나무심기 연차 추진

조림·도시숲·경관숲 조성

도심 탄소흡수원 대폭 확충

해남군이 앞으로 5년간 200만 그루 나무심기로 탄소흡수원 확보에 나선다.

해남군은 민선 8기 체계적 녹지면적 조성을 위한 탄소흡수원 2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해남형 ESG실현과 기후변화대응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848ha면적에 나무심기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연간 40만그루씩 2026년까지 200만 그루를 심게 되는 이번 사업은 조림사업과 도시숲 조성, 가로수 식재 등을 통해 군 전체에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또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나무나누어주기 행사도 연차적으로 규모를 늘려 2만 7000여본을 분양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조림 등 올해 227ha 면적을 조성하는 데 이어 2026년까지 매년 100ha씩 조림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조림사업을 통해 130만본의 나무를 심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숲, 마을숲 조성 등 지역별 맞춤형 도시숲 조성을 통해 6만 7000여그루, 특색있

는 가로수 조성을 통해 총 15만 그루를 조성하게 된다.

군은 특색있는 경관숲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흑석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2022년부터 3년간 60ha 면적에 산철쭉 경관숲을 조성하고, 화원반도 목포구(木浦口) 등대,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에 2023년부터 5년간 200ha 면적에 배롱나무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관숲 조성에는 36만여그루가 소요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8기 해남형 ESG의 실현을 위해 탄소흡수원인 산림자원 확충에 적극 나서게 됐다"며 "전 군민과 함께 200만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가지는 숲 조성과 녹색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인도네시아 중앙부처 공무원 부통령실, 국가개발기획부, 공공주택사업부 관계자 등이 영산강사업단을 찾아 농업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인니 고위 공무원단 영산강사업단 현장견학

물 관리 경험·지식 전수

인도네시아 중앙부처 공무원 부통령실, 국가개발기획부, 공공주택사업부 관계자 등이 농업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영산강사업단을 찾았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지난 19일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국제교육교류센터에서 인도네시아 중앙부처 공무원을 초청해 현장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저반침 하로 해안 수위상승이 심각한 침수피해가 이어지

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현장견학은 영산강하구둑, 산이배수갑문을 차례로 방문해 수위조절, 관개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 향후 현지 도입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헤르만위조조 인도네시아 자문관(부통령실 VP Advisor)은 이번 방문을 통해 영산강사업단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지구, 대규모 배수갑문 운영관리에 대한 경험 및 지식공유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에서 관개시설 구축 및 배수갑문을 벤치마킹해 자연재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완도군 최대 스포츠 시설 청해진스포츠센터 개관

2년간 사업비 195억원 투입 건립

전남체전 등 체육행사 주무대 활용

완도에 대규모 스포츠센터가 문을 열었다. 청해진스포츠센터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총사업비 195억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연면적 7136㎡, 지상 2층, 관람석 1026석 규모다.

완도군은 센터 명칭 공모를 통해 완도의 옛 명칭인 청해진스포츠센터로 명명했다.

완도군은 스포츠센터에서 다양한 스포츠 강좌를 운영해 군민들에게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행사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개최되는 제62회 전남체전과 제31회 전남장애인체전, 2024년 전남생활체육대축전 등 5개의 대규모 체육 행사의 주 무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군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 체육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육 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며 "내년부터



지난 19일 완도를 가용리 체육공원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이재갑 국회의원, 허궁희 완도군시장, 이철 전남도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해진스포츠센터 개관식이 열렸다. <완도군 제공>

지러질 대규모 체육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완도 경제에 효과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

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시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통

목포시가 세라믹산단 진입도로를 22일 개통했다. <사진>

그동안 세라믹산단에서 연산119센터를 경유해 산정농공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연장 800m, 왕복 2차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랐다.

시는 이 같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45억원(보상비 5억원, 공사비 40억원)을 투입해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연장 245m, 폭 20m)를 지난 2020년 12월 착공했고, 올해 8월 완료했다.

진입도로 개통에 따라 산정농공단지와 세라믹산단이 직선으로 연결돼 원활한 물류 수송이 가능해지는 한편 북항의 대단지 아파트(7개 단지, 3678세대) 등으로 우회 가능한 도로가 확보돼 산단 활성화와 북항로 교통 정체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세라믹산단 진입도로가 직접적으로는 산단내 원활한 물류 수송, 간접적으로는 삼진고가에서 세라믹산단 진입 후 북항 아파트단지까지 신호없이 진입할 수 있어 출·퇴근 시간대 북항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진도아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

진도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22일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은 개인당 지류형과 카드형을 합쳐 월 70만원, 연 6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가맹점주는 카드형만 할인 구입이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 구입은 관내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세마을 금고 등 18개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카드형은 '지역상품권 착(chak)앱'을 통하거나

관내 농협과 세마을 금고를 통해서 카드발급·충전이 가능하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할인 판매를 진도군이 지속적으로 시행해 올해 상반기 판매액은 200여억원에 환전액은 185여억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군은 진도아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신고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심 가맹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세열골

“사회적약자보호·지역맞춤형 치안에 최선”

김종득 영암경찰서장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제78대 영암경찰서장으로 취임한 김종득 총경은 “첫 부임지인 영암에 서장으로 발령을 받아 감회가 새롭다”며 “모든 민원에 대해 경중에 관계없이 차별을 두지 않고 주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민안심치안과 사회적약자보호, 지



역맞춤형 치안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감 넘치는 프로 경찰, 의무반 없는 건강한 영암경찰을 목표로 출근하고 싶은 직장 문화를 만드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출신인 김서장은 전남청 청문감사담당관, 장성경찰서장, 전남청 교통과장 등을 역임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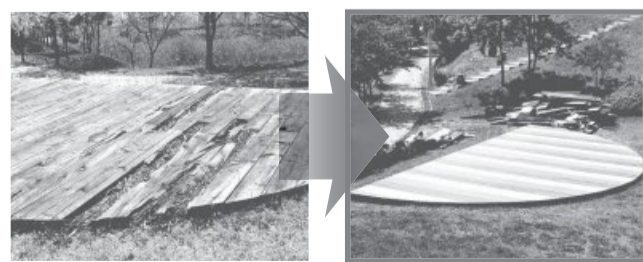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